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3년도 표어 ☉

생명의 성령이여 삶의 주인이 되소서 (롬14:17)

☉ 행동지침 ☉

- 1. 역사의 주권자를 보자
- 2. 임마누엘의 삶을 살자
- 3. 생명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소선지서 강해 -미가서-

베들레헴 (미가 5장 1 - 4절)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위하여 혹은 죽는 이가 있을지 모르나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과 평강과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1절에 ‘딸 군대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딸은 유약한 자의 대명사이며 군대는 모이는 모든 무리를 말하며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딸 군대여’는 이스라엘이 모든 면에서 연약한 국가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흠어지면 더 약해질 터이니 때를 모으라고 하십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침략자가 막대기로 이스라엘 왕의 뺨을 치는 비통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실제로 느부갓네살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잡아갈 때 왕의 두 눈을 뽑고 쇠고랑으로 손과 발을 묶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와 같이 통치자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백성들이 가슴을 치는 일들이 이스라엘에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범죄 한 이스라엘에게 무서운 경고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비통함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베들레헴에서 다스리는 분이 나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지금은 왕이 비참하게 끌려가고 있지만 앞으로 베들레헴에서 참 지도자가 나타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어 이스라엘을 창대하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1.메시아의 탄생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스블론의 베들레헴(수 19:15)과 구별하여 정확한 지명을 나타낸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house of bread(떡집)’, 에브라다는 ‘plenty(풍성하다)’라는 뜻으로 풍성한 생명의 떡이 있는 곳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메시아입니다.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를 다스리실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2절). 이것은 크기가 작다는 것보다는 거주하는 사람이 적다는 뜻으로 베들레헴은 예부터 가장 작은 고을로 불리었습니다. 인간적으로 힘이 부족한 이 곳 베들레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다스리는 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와 같이 다스리실 분, 곧 메시아가 아주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2절).

또한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세상의 근본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는 영원 전부터 영원히 계시고 자존자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요 1:1-3).

예수님은 태초, 다시 말해서 상고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으며 그가 없이는 이 세상에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그의 저서 ‘역사의 연구’에서 수천 년의 인류 역사를 승하다가 쇠퇴해버린 인류 문명을 바벨론 문명, 페르시아 문명, 로마 문명 등 21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한 문명은 생성과 성장과 쇠퇴와 멸함으로 이루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상고에 있었고 영원에 있습니다.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3절).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나라가 오기까지 수난의 기간동안 열국의 손에 붙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한 연고로 그들은 자유를 빼앗기고 타국의 통치를 받는 불쌍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지나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 메시아의 형제, 곧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게 되고 그 날에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날까지 이스라엘은 흠어져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2.메시아의 사역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4절).

“나는 선한 목자라”(요 10:14). 메시아는 선한 목자(good shepherd)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목자는 양을 돌보다가 양이 위험한 지경에 처하면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그 양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죽음을 택하신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

이라고 하나 엄밀히 말하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라고 해야 하며 이것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선한 목자입니다.

“하나님께서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행 2:23). 예수님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대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마 1:21).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이야말로 희생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위하여 혹은 죽는 이가 있을지 모르나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과 평강과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요 10:14-15).

참 목자는 자기의 양을 알고, 양 또한 자기의 목자를 알아봅니다. 자기 양을 알아보지 못하는 양은 선한 목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친구들도 서로 잘 안다고 말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잘 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 앎의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 같이 선한 목자는 양을 알아보고, 양 또한 자기의 목자를 알기 때문에 아무나 좇아가지 않으므로 참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돌보십니다. 그리고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고 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온 세상 도처에서 목자를 찬양하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겸손히 그 길을 따라 가므로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르가니스트 공개 선발한다

지원 마감일 7월28일(월) 오전까지

우리교회는 새로 설치되는 파이프 오르간의 연주자를 국내외적으로 공개 선발하기로 하고 신앙과 기량이 뛰어난 많은 분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 당회는 현재 봉사하고 있는 분들을 포함하여 교회 안과

밖에서 활동하는 오르가니스트를 선발대상으로 공채형식을 거쳐 창방기로 하였다.

지원서 양식은 사무국에 비치되어 있으며 지원 마감일은 7월28일(월) 오전까지이다.

신나는 여름 성경학교

교육1국 여름성경학교 21(월) - 23일(수) 교회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기도하며 기다려 온 신나는 여름성경학교가 드디어 내일 열린다.

우리교회 교육1국(유아, 유치, 유년, 초등부)은 2003년 여름성경학교를 교회에서 열기로 계획하고 모든 선생님들이 교회로 나와 교재도 준비하고 게임도 준비하며 어린이들과 즐겁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세상을 향해 막 눈을 떠가는 학생들이 하나님만 바라보

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며 친구들도 전도하여 함께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가르칠 예정이다.

여름성경학교는 21일(월) 오전 10시 30분에 101호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함께 모여 개회예배를 드리고 난 후 각 교회학교별로 시작하게 된다. 많은 어린이들이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은혜 받고 새사람 되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기도한다.

부서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유아부	7/21~22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집	이종윤 박금실
유치부	7/21~22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집	이종윤 이규정
유년부	7/21~23	교회	친구를 예수님께!	이종윤 조대영
초등부	7/21~22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집	이종윤 김희정

메시아 연합 대합창 공연

-12월 우리교회 주관으로, 8월 2일(토) 부터 연습시작 -

해마다 한국 교회들이 연합하여 500여명의 대 합창단을 구성하고 웅변의 메시아를 협연하는 행사가 올해에는 우리 교회 주관으로 열린다.

메시아 연합 대 합창을 준비하는 준비위원장 임상현 장로는 우리 교회 찬양대원들이 주축이 되어야 하므로 주중 연습에 이미 각 찬양대별로 돌입했다고 보고한다.

아울러 이번 합창제에서 부를 메시아는 우리 교회 음악 감독인 백효죽 장로가 번역한 것으로 아시아에서는 처음

소개되는 것으로 대원들의 흥미를 일으키고 있다. 찬양부에서는 지금까지 찬양대원으로 봉사치 않은 성도 중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이가 있으면 환영한다고 한다. 신청은 사무국에서 받는다.

한편 찬양감독 백효죽 장로는 메시아 연합 대합창 공연을 위한 우리 교회 찬양대 연합 연습을 오는 8월 2일(토)부터 시작하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501호실에서 갖을 예정이라고 전하고 있다.

금월 선교 헌금은

단기 선교팀과 농촌 전도대 파송에 쓰기로 하다

7월 27일(주)에 선교 헌금 드리

격월로 선교헌금과 장학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는 오는 27일(주)에 드리게 되는 선교헌금을 8월 초에 파송하게 되는 단기 선교팀과 농촌 전도대 파송에 쓰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단기 선교팀과 농촌 전도대는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헌금은 받지 않고 오직 금월 선교헌금만으로 모든 준비를 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단기 선교팀이나 농촌 전도대를 후원키로 작정한 성도들은 오는 27일(주)에 선교 헌금으로

드리면 되고 교회는 이를 단기 선교팀과 농촌 전도대에 적절히 배분하여 선한 사업에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하게 된다.

많은 성도들이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헌금을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한다.

한편 농촌 전도대에서는 올해부터 2개 교회에서 전도 활동을 펴는 만큼 전도대원으로 함께 봉사할 성도들을 더욱 요청하고 있다. 전도대원으로 봉사하기를 원하는 성도는 사무국으로 신청하면 된다.

2003년 농촌 전도대 준비일정 확정

오늘 부터 오리엔테이션으로 시작

오는 8월 5일(화)부터 8일(금)까지 4일간 신덕교회와 승원교회 두 곳에서 전도활동을 전개할 예정인 2003 농촌 전도대는 파송에 앞서 준비를 위한 세부 일정을 확정 지었다.

2003 농촌 전도대의 준비일정은 다음과 같다.

7월 20일(주) 오리엔테이션 (강사: 이규정 목사)

27일(주) 전도교육, 성경학교 교육

(강사: 이성득 목사, 조대영 전도사)

8월 1일(금) 전도교육 특강 및 기도회 (오후 7:30)

(강사: 이종윤 목사, 이규정 목사)

3일(주) 총점검 (이규정 목사)

한편 선발대는 7월 29일 부터 31일까지 전도 현지로 먼저 파송받아 준비작업을 하게 된다. 선발대에서는 이를 위해 교회내에서 전기 취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급히 찾고 있다.

헌물봉사 공개하지 않기로

지금까지 순례자는 성도들이 바친 헌물을 공개함으로써 바친 이는 물론 성도들에게 격려를 해왔다. 그러나 헌금을 바친 이들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듯이 헌물로 바친 이들의 간청도 있어 이제부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공개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성숙한 교회의 모습을 보이는 일에 성도 여러분의 이해와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

7월 성경통독자 시상

매월 셋째 주일 찬양예배시간에 성경을 통독한 성도들을 시상하고 있는 교회는 7월 성경통독자 시상을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갖는다.

교회는 성경 통독을 하신 성도들에게 교회로고가 새겨진 머그 컵 세트를 드려 가정에서 좋은 기쁨이 되도록 하고 있다.

7월 성경통독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3독 - 김정호 집사(12교구)

1독 - 김순인 집사(5교구) 신계순 집사(5교구)

최재춘 집사(6교구) 김인식 권사(8교구)

김희진 권사(9교구) 남정열 성도(12교구)

제24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9월8일 개강

제24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가 오는 9월 8일(월) 부터 시작되어 11월10일까지 총 10주간의 강의일정을 시작하게 된다. 성도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금주의 성구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고전 4:1)

So then, men ought to regard us as servants of Christ and as those entrusted with the secret things of God.

(NIV 1 Corinthian 4:1)

조대영 전도사(유년부 지도)

유년부(부장 신용식집사)는 초등학교 1,2,3학년 어린이들이 모여 함께 말씀 공부하는 모임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너무나 커서 형제 베드로를 전도해 왔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열두제자에 들어간 세상에서 가장 멋진 형제랍니다.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에 오세요. 우리 모두 성경박사 어린이, 기도대장 어린이, 전도하는 어린이, 선교하는 어린이가 되자구요. 세계의 모든 어린이들이 우리들의 친구랍니다. 친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7월 21일 월요일에는 교회 학교장이신 이종운 목사님과 함께 개회예배를 드리고 성경공부, 찬양시간, 전도방법 공부, 공동체 훈련을 하고 친구를 전도하러 나갑니다.

7월 22일 화요일에는 전도한 친구와 함께 9시에 교회로 나오세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까지 함께 말씀공부를 하고 찬송도 드리고 식사도 하고 물놀이, 비디오, 퀴즈, 코너학습, 세족식, 촛불예배, 캄보디아에 대하여 공부하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룻밤을 같이 보내고 새벽에 예배도 드리게 된답니다. 그리고 전 세계 200여개의 나라로 기도하는 선교사, 헌금하는 선교사, 직접 가는 선교사로 파송의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들이 좋아하는 필그림 축구단의 후반기 선서식도 함께 한답니다. 7월 21~23일까지 일박삼일로 진행되는 서울교회 유년부 성경학교에 우리 친구들 많이 오세요. 전도한 친구들과 함께 오세요.

김익정 전도사(초등부 지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어린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저희 서울교회 초등부(부장 오정수 장모)에서는 이번 여름방학을 기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집"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어린이들의 신앙의 성장을 도모하고 또 삶의 변화를 가지게 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어린이들의 삶 가운데 어찌면 평생에 단 한번밖에 경험하지 못할 귀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될 것이며, 또한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진 축복 가운데 더욱 새롭게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초등부의 모든 어린이들이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귀한 시간을 경험하고 평생토록 하나님의 축복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 초등부의 모든 어린이들을 여름성경학교에 초대하오니 귀 가정의 자녀들이 꼭 참석하도록 독려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룻밤을 같이 보내고 새벽에 예배도 드리게 된답니다. 그리고 전 세계 200여개의 나라로 기도하는 선교사, 헌금하는 선교사, 직접 가는 선교사로 파송의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들이 좋아하는 필그림 축구단의 후반기 선서식도 함께 한답니다. 7월 21~23일까지 일박삼일로 진행되는 서울교회 유년부 성경학교에 우리 친구들 많이 오세요. 전도한 친구들과 함께 오세요.

장년부 수련회를 마치고



김석범 집사(12교구 수지 다락방, 장년 1부 교사)

작년에 이어 올해의 장년부 수련회를 참가하였다. 개회예배에서 이종운 목사님은 준비된 성도가 되어야 역사가 있으며 또한 겸손과 갈급한 심령과 화합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었다.

초청강사이신 장진대의 오성춘 교수님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정 해체 문제에 관하여 여러 사례를 들어가면서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유를 연세 드신 분들이나 젊은 부부들도 공감할 수 있도록 재미있고도 쉽게 이야기해 주셨다. 강의 중간 중간에 웃음과 함께 강연 내용에 공감하여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오교수님은 부부예화 중 함께 성경공부에 참석하는 믿음 좋은 부부가 부인이 비성경적이라고 생각되는 서적들을 읽는 문제로 다툼이 생겨 이혼까지 고려하고 있는 문제를 사례로 들어 왜 믿음이 좋은 부부간에도 이혼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남편과 아내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법으로 성경적인 방법을 이야기하여 주셨다.

가정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와 자녀를 보아야 한다는 말씀과 그를 위해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하루 한번 이상 자녀를 축복해 주라는 말씀을 하셨다. 오후 시간은 장년1,2,3부와 4.5부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장년1,2,3부에서는 남녀간에 연령별로 나누어 주어진 주제에 관하여 서로 생각을 나누는 공동체 훈련 시간을 가졌다. 평소 교회에서 만나기는 하였으나 의견을 나눌 기회가 없었던 교우들과 서로간의 의견을 나누다 보니 믿음의 간증도 들을 수 있었고 친밀함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공동체 훈련시간을 마친 후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시간을 갖고 모두들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드린 후 폐회예배를 마치고 모두 오늘 배운 대로 더욱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를 다짐하며 가정으로 돌아갔다.

많은 은혜를 받고 수련회를 마치면서 교회에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교회가 크고 교인의 수가 늘면서 오래 교회생활을 하였던 분들이 아니면 평소에 교회에서 자주 뵈던 분들이라도 얼굴만 알고 성함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현재 교회에서는 새가족부의 교사들이나 장로님들은 플라스틱 명찰을 착용하고 있으니 모든 교인이 시행하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명찰을 착용하고 다닌다면 아마도 교인들 간의 교제도 더 강화되리라 생각된다. 우선 봉사자들의 주일 날 명찰 착용을 교회가 시행하여 보기를 제안해 본다.

유영준 집사(3교구)

대한민국의 헌법을 만든 날을 기념하는 제헌절에 우리 교회에서는 장년부 여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모처럼 맑은 공휴일에 많은 다른 계획을 뒤로 미루고 하나님의 법을 청중하기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주님 전으로 달려온 성도들에게 이 날은 매우 귀한 날이었습니다.

개회 예배 시 위임목사님이 선포하신 이방인 고벨로의 신앙(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철저히 준비된 자세와 겸손함,갈급함)은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후 오성춘교수님(장진대 상담학)의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주제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강의에서 기독교 가정의 부부간의 관계에서 일어난 구체적인 갈등 사례에 대한 해결책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제시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요체는 가정에서 가정의 법을 세우되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법을 세우며, 부부간 및 부모 자식간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된 우리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예를 들어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나의 속을 꿰고 있는 이 사람도 요3:16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것)에서 서로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체는 내가 내 자녀를, 배우자를, 부모님(시부모님)을 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레인데 자녀를 성공적으로 잘 양육한 미국의 모범적인 10가정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그 부모가 매일 같이 하루 한번 이상 자녀를 축복한 가정이라고 합니다.

교수님의 열강에 귀를 기울이다보니 1시간 30분의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점심 식사 후 가진 공동체 훈련 프로그램에서는 연령별, 남녀별로 몇 개의 그룹을 만들어서 각 그룹별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하였습니다.

"용서란 무엇인가? 왜 용서를 해야 하는가? 어떻게 용서를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했는데 성도간 매우 유익한 친교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기도회 및 폐회 예배를 드림으로 장년부 1일 수련회가 마쳐졌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의 구체적 모습을 하나님의 법(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닫게 된 귀한 수련회였습니다.



최악을 최선으로 만든 사람들

이영숙 선생(사랑부 교사)

필름을 이네 '최악의 상황을 최악으로' 만들어 버린 무시무시한 강도와 '최선을 최선으로 만든' 평범한 여관집 주인, '최선을 최악으로 만든' 비열한 제사장과 '최악을 최선으로 만든' 선한 사마리아인의 얼굴로 변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종윤 목사님의 설교시간,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랑부 어린이들도 열심히 설교를 듣고 더욱 놀라운 것은 설교를 들은 후 철이 든 학생들의 얼굴에는 무언가 결의 같은 것이 얼굴에 어려 있는 것이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이들의 얼굴이었다.

2부 순서로 영등이로 풍선 터뜨리기. 뛰어가서 입으로 과자 먹기, 가족 신문 만들기등 하나 하나 프로그램이 진행되자 아이들의 기분은 갈수록 고조되었다. 그러다가 간식시간이 되자 그야말로 아이들의 기분은 절정에 이르렀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속에서 아이들은 하나같이 깊은 잠속에 빠져 있었다. 아이들의 잠자는 모습 속에서 나는 가장 연약한 이 아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드러내는 최고의 걸작품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사랑부 교사가 된지 겨우 7개월이다. 그러나 40여 년간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나는 요즘 이 아이들을 통해 하나씩 맛보고 살아가고 있다.

최악의 조건과 상황이란 늘 인간의 시각에서 보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오히려 최상의 것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것을 사랑부 교사를 하며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

몇 분 후면 사랑부 여름성경학교가 시작되는 시간. 급히 사랑부 담당 목사님이 종이 한 장을 들고 교사실로 오셨는데 '최악에서 최선으로'란 글씨가 써여있고 그 아래에 4개의 간단한 그림과 그 옆에 몇 마디의 글씨가 써여 있었다. 그 그림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 강도, 여관집주인, 제사장, 사마리아인-들로 설교 보조 자료가 될 것이었다. 선생님들의 빠른 손길로 네 장의

2003 청년 calling을 마치고

이지영 (청년부)

청년부 Calling에 Calling 받아 나간 지난 주일이 내게는 너무나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우리교회 사이트에서 보고, 알고는 있었으나 내심 왜 전화가 없을가 기다려지기도 했었는데 바로 전날 김성실 자매로부터의 전화 한 통화에 내 마음은 움직였습니다.

나의 교회 안에서였지만 내게는 낯설기만 한 곳에서 나를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너무나 감사했던 자리였습니다. 마음을 늘 함께 하기를 바랬으나 용기가 없어 기회만 보고 있던 나로서는 이번 Calling이 얼마나 고맙고 반가운 자리였는지 모릅니다.

기쁜 만큼 앞으로 열심히 믿음을 키워나가며 또 배워나갈 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도와주세요. 청년부 형제 여러분.

나소정 (청년부)

매주 백여 명이 모이는 청년부는 지난주일 교회내 청년부 출석을 하지 않는 지체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calling 행사를 가졌다. 청년부는 흥쾌작전 기간동안 이 행사를 위

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각각 또래별로 다섯 명씩 친구를 나누어 연락하는 등, 오랜 시간동안 준비하며 기다려 온 시간이었다. calling행사를 통해 열세 명의 새 지체들이 청년공동체에 함께 하게 되었고, 기존의 청년 회원들도 이날 만큼은 새롭게, 보다 깊이 서로를 들여다 보는 계기가 되었기에 감사와 은혜가 6층 청년부실을 가득 채우는 축복의 시간이었다.

이태훈 전도사님은 귀한 말씀으로 Calling의 의미를 일깨워 주셨고, 청년부의 소 모임인 남성중창단에서는 독특한 울동을 결정한 찬양으로 즐거운 무대를 선사하기도 했다. calling 행사에 참여한 소모임과 조모임, 지체들에게는 만만사에서 제공하는 식사 티켓과 KBS(감민철 형제), 16대 국회(노창훈 형제)에서 마련한 각종 시상품이 전달돼 풍성한 나눔과 함박웃음이 만발했다.

저녁예배를 마치고 청년부 교사들이 준비한 특별 메뉴로 모두 함께하였다. 뒷정리를 도맡은 막내 78또래의 분주한 움직임으로 2003 청년 calling은 마무리되었다.

혹 calling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청년들이여! 오늘 601호, 청년부실을 노크하라! calling은 바로 지금 당신을 향한 주님의 메세지이니깐!

찜뽀름 수어? (안녕하십니까?)

캄보디아 단기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1. 캄보디아와 캄보디아인을 사랑하며 이방족속을 마음에 품도록
2. 선교지를 직접 관찰 분석하고 현지선교사의 사역을 돕도록
3. 현지 선교 상황과 기도제목의 체화로 참된 중보자로 서도록
4. 영적으로 깨어있어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5. 음식, 식수, 날씨에 잘 견딜 수 있도록
6. 풍토병 및 기타 질병을 이겨내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7. 예배를 인도할 김운호 목사님과 단기선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8. 어디를 가든지 돕는 자와 좋은 여건을 만나도록
9. 각자가 맡은 일을 주께 하듯 성실히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10. 사단의 시험과 함정을 분별하고 이겨내도록
11. 현지인과 화목하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도록
12. 가는 곳마다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고 찬양과 영광 돌리도록
13. 모든 대원들이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는 참된 교제가 되도록
14. 현지에서 교통수단과 숙박시설이 충분하도록
15. 선교여행의 체험이 삶 속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관별 식당 봉사자

7.20(주) - 엘리아 남선교회 7.27(주) - 모세 남선교회

동정

- 이종윤 목사는 21일(월) 경주에서 전국 강로수련회 주례 강연을 한다.
- 이사: 12교구 양재인집사, 송승영집사, 경기 광주시 쌍평동 현대 2차 204/1102 전화)031-764-5256
6교구 하정자 권사 부천시 중동 은하2마을(TEL) 533-2011 전화) 032-326-4606
김영화집사(9교구 권순만단기사부군) 의정부경찰서장부임
금주의 식사: 조철기 · 김영란 집사 (부천 장례 은혜중에 마치고)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Y 106.9M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2.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3. 캄보디아 단기선교팀 · 농촌 전도대 파송을 위하여
4.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

